

러 연방 부랴티아, 불교 움튼다

인도서 찾은 부흥 단초... 부랴티아에서 회향 부다가야 칼라차크라 동시통역 실시간 중계



인도 부다가야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현장. 달라이 라마가 집전한 이번 법회에는 400여 명의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참여했다.

유럽 최초의 불교사원이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 19세기 불세비키 혁명 이후 쇠락한 부랴티아(Buryatia) 불교계가 부흥의 단초를 인도에서 찾았다.

온라인 매체 러시아&인도 리포트(Russia&India Report, http://indrus.in)는 1월 31일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인도 불교성지 부다가야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례 길을 나서고, 티베트 사원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0여 부랴티아 스님과 불자들이 부다가야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 집전 칼라차크라(Kaalchakra) 법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 법회 실황을 러시아어로 통역해 부랴티아 FM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부랴티아 공화국은 지금부터 400여 년전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를 티베트와 몽골을 거쳐 수용한 이래 200여 년간 불교가 융성했다. 그 후 불세비키

혁명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부랴티아 불교는 소비에트 연방(USSR)의 붕괴와 함께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지금은 칼미키아(Kalmykia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공화국), 투바(Tuva, 러시아 중부에 있는 공화국)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라차크라 법회에 참여한 타마라 소드노모바(Tamara Sodnomova, 61) 씨는 "부랴티아 공화국에는 1300여 불교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간절히 찾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올란우데(Ulan-Ude, 부랴티아 수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정진하다 보면 그 뜻을 헤아리는 날이 오질 않겠느냐"고 반문한 소드노모바는 "부랴티아 불교계는 80여 년간의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며 대부분의 전통을 잃어버렸다"며 "부랴티아 불교도들이 인도 성지순례와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일상에 적용시킬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방갈로르(Bangalore, 인도 카르나타카 주에 있는 도시)에서 IT회사에 근무하는 부랴티아인 다리마 다라마 카론(Darima Daribazarov) 씨도 이번 법회에 참여했다. 그는 "고국(부랴티아)의 스님들이 인도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랴티아인에게 법회 참여를 적극 권했다"며 "인도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부랴티아 불교도들은 지금의 배움을 수련 마일 떨어진 부랴티아에서 회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인도 리포트'는 "티베트 사원대학에서 공부하는 부랴티아 학생 2명이 최근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개세(Geshe, 박사) 자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카르나타카(Karnataka, 인도 남서부에 있는 주)에 있는 티베트 사원대학에서 공부해 온 부랴티아 학생들은 12~20년간 티베트어로 진행되는 경전 공부와 토론 과정을 밟아야 받을 수 있는 '개세 자격'을 16년 만에 받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랴티아 불교와 이티겔로프 스님

부랴티아(Buryatia) 불교는 '재정 러시아' 시대에 가장 융성했다. 당시 불교계 최고 지도자는 다쉬 도르조 이티겔로프(Dashi-Dorzho Itigelov) 스님으로, 191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Czar Nicholas II)로부터 '성인'의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노프가(the House of Romanov)의 300주년 기념식 집전도 맡았다.



다쉬 도르조 이티겔로프(Dashi-Dorzho Itigelov) 스님

기념식은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세워진 유럽 최초 불교사원 근체초니네 다잔(Gunzechoyney Datsan)에서 열렸다.

이티겔로프 스님은 1927년 깊은 명상에 든 채 임명한 예로도 부랴티아 불교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은 법구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유실됐는데, 2002년 부랴티아 불교성지 이볼긴스키 다산(Ivolginsky datsan)에서 소나무 상자에 싸인 채, 임명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굴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발굴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은 "불교 36시간 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부와 근육 등에서 부패가 진행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동북아 불교교류의 가교를 놓다

세계의 불교학자(5)

조박초 중국불교협회 회장



위원회 주석도 맡았다.

저명한 사회 활동가이자 서예가이며 시인 겸 유명작가인 인물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불교관련 저서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발전엔 큰 공헌까지 했다. 지금 나열한 직함 중 어느 한 가지도 평생을 바쳐야 하는 일인데 이를 모두 완수한 경지까지 체득 한 인물, 그가 바로 중국의 조박초(1907~2000) 중국 불교협회 회장이다.

조박초 회장은 근대중국불교를 증흥하기 위해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문화혁명이 끝난 중국에 종교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산화된 중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조 회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92년 한국에서 열린 동북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조 회장에 대해 동국대가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천태종 부산 삼광사를 방문해 처음으로 한국의 수행과 포교현장을 답사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가 본격화 됐다.

평생을 불교발전과 불교국제교류에 힘써 온 조박초 회장은 중국 안휘성(安徽省) 태호현(太湖縣)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모친과 가정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믿게 됐고, 청년시절에는 소주(蘇州)의 동오대학(東吳大學)에서 공부했다.

그러던 중 1927년 여름, 병이 들어 상해(上海) 각원(覺園)에 있는 외삼촌 관경지(關鏡之)의 집에서 요양하며 살게 됐다. 관경지는 당시 상해에서 유명한 불교 박사였고, 그 영향으로 조박초 회장은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그 뒤, 젊은 시절부터 불교사업에 투신한 이래 많은 불교계의 저명인사들과 접촉했고, 1928년 이후에는 상해·절강 불교연합회 비서, 상해불교협회 비서, 불교정업사(佛教淨業社) 사장을 역임하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과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1929년에는 중국불교협회가 발족했고, 초대 회장으로 원영(圓瑛) 대사가 선출됐다. 그리고 태허 대사와 조박초의 외삼촌 관경지 등 아홉 명이 상무위원에 임명됐고, 본인은 주임비서가 됐다. 이때 만난 태허 대사는 훗날 조박초 회장에겐 삶의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1937년 '상해 8.13 항전'이 터진 후에는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때 일본불교도에게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라는 글을 써 보내기도 했다. 1953년에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이 됐다. 1980년 이후는 중국불교협회 회장과 중국불학원 원장을 줄곧 겸임하면서 중국종교화평

조박초 회장은 오랜 세월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불교인재 양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불교기초지식 등에 관한 입문서 등 많은 불교서적을 저술했다. 1950년 창간된 중국근대 불교학술지 <현대불학>에 수많은 논문을 기고했고, 대표적인 저서 <불교지식문답(佛敎知識問答)>은 문답형식을 빌려 불교교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명저이다. 한국에서도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이 번역했다. 그와 함께 중국불학원을 통해 젊은 승려들이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현대 중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다.

다방면에 재능 뛰어난 불교학자

동국대에서 명예철학박사 수여

한중일 불교교류에 초석 마련

중국의 종교자유 위해 평생 노력

조 회장은 또 한중일 3국의 불교교류 확대에도 힘을 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발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8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회를 연 이후, 매년 3국이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단지 중국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 불교교류를 위해 '3국 황금유대정신'을 주창해 세 나라의 불교유대를 공고히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조박초 회장이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을 때, 중국불교협회 공식전언에 따르면 마지막 임종직전까지도 "본인은 불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초도식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몸을 인체 해부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해 수많은 중국불자들이 감동케 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불교신앙생활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조 회장은 중국 불자들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호주 WA 퍼스, '법등을 밝히다'

2월 2~4일 '호주와 불교' 주제 첫 국제회의... 27명 스님·학자 발제

호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est Australia, 이하 'WA') 주의 퍼스(Perth) 시에서 법등이 밝혔다.

온라인 매체 퍼스나우(www.perthnow.com.au)는 "지난 해 WA 퍼스에 이민 온 '에스토니아 님마 불교(Estonian Nyingma Buddhism)' 대표 벨로 바르토노우 스님이 퍼스 시민들의 불심을 깨우기 위해 지역 사상 처음으로 국제회의와 대중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불교와 호주 2012(Buddhism & Australia 2012)'라는 모토(motto)로, 바르토노우 스님과 WA 불교계가 힘을 모아 기획한 이번 국제행사의 주제는 '불교와 호주를 생각하는 회의(Buddhism and Australia conference)'이다.

"행사가 진행된 2월 2~4일, 퍼스 시민들이 불교의 가치를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바르토노우 스님은 "호주 이민 후 퍼스에 정착해 사는 동안, 이곳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윤리(ethic)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포교의

가능성을 확신했다"며 "퍼스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퍼스 시민들이 불교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곳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머독대학(Murdoch University)에서 3일간 열리는 '불교와 호주 2012(Buddhism & Australia 2012)'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27명의 스님과 학자들이 발제에 나서, 호주 불교의 깊이를 가늠하고 아시아 불교의 가치를 세웠다.

바르토노우 스님은 1980년대 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고정칼럼을 진행하는 등 매우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유럽으로 이주해 '에스토니아 독립당(Estonian National Independence Party)'을 창당, 구소련에 맞섰던 그는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추방돼, 히말라야 주변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때 그는 티베트 불교 수행에 매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이주한 그는 스웨덴에서 포교에 나서고, 현재 호주에서 법등을 밝히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 미국 웨스턴 코네티컷주립대학 방문

10월 18·19일 양일간 '불교적 지혜' 주제로 대중 강연

달라이 라마가 오는 10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 켈퍼스에서 '불교적 지혜'를 주제로 대중 강연에 나선다.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제임스 슈모터(James Schmotter) 총장은 "달라이 라마가 오는 10월 18·19일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며 "양일간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현대인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10월 방문'은, 1월 10일 뉴욕 주 티베트 사무국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제임스 슈모터 총장이 도 나카 쿤펜헨(Do Ngak Kunphen Ling) 스님의 도움을 받아 2년간 노력한 성과물이다. 도 나카 쿤펜헨 스님은 현재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 인근 레드(Redding)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사원을 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재천신신 오희,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양부도 왕생정토,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
강건 육근청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베트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범륜, 법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범구입니다.

사할 불법역 성향원할 기원할 때 · 불사 신도변장을 발원할 때
사업, 장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은,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하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가 가게터가 산만하고 뒤송송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세로 33cm×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풍다원, 가격 | 180,000원(사할님 20%할인)

입금 계좌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음마니반에홍 열꽃
운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운장대,
또는 법문대라고도 하는 이 범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운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정소, 가수현원, 가정의 가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운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간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활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할에 신도 개인인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운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할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풍다원

입금 계좌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